

현대복식에 나타난 모자이크풍 패턴에 관한 연구

남 윤 숙 · 김 복 희*

신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신라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Mosaic Pattern in Modern Costume

Yoon-Sook Nam · Bok-Hee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illa Univ.

Dept. of Clothing & Textiles, Silla Univ.*

(2000. 10. 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aesthetic character of a mosaic which is expressed in the Modern Costume. The methods of the research were by literature and it was mainly done with reference to master's theses, doctor's theses, separate volumes, periodicals, domestic and overseas fashion magazines and internet on the subject. The result of the research appears as rhythm, exoticism, abstraction, mystery, recreation by disintegration. First, rhythm appears in a sense of free rhythm with the method of arranging motives and the kinds of materials varying. Second, exoticism gives impression with such motives as Oriental designs, African designs and the geometric designs of nature occupying the surface. Third, abstraction displays motives such as unrealistic fashion. Fourth, mystery gives a cyber-related impression with the help of such scientific materials as fluorescent plastics, metal and glass. Fifth, recreation gives an aesthetic impression by reorganizing the costume with the disintegration and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materials such as plastics, metal and glass, etc. based on their unique colors and quality.

Key Words : 현대 복식(modern costume), 모자이크풍 패턴(mosaic pattern), 미적 특성(aesthetic features).

I. 서 론

복식의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옷감의 표면에 변화를 주는 여러 방법중 모자이크풍 패턴에 의한 장식은 회화양식의 하나¹⁾인 모자이크 장식의 특징을 이미지화하여 얻은 것이다. 모자이크풍 패턴의 조형

적 특징은 활용된 재질의 종류, 형태 및 색채 등에 의해 면을 분할하고 재구성하여 특유의 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자이크풍 장식은 옷감위에서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원래 모자이크 패턴은 빌딩의 장식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장식에서보다 어패럴 텍스타일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²⁾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복식에 나타난 모자이크 풍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모자이크풍 패턴은 기본 단위인 모티브의 형태, 재질, 색채 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된 모티브의 종류 및 모티브를 배열한 후 고정시킬때의 방법을 특징에 따라 분류한 후, 이들이 복식에 적용되어 나타난 것을 고찰하고 미적 특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대복식의 미학분야를 폭넓게 이해하고 참고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의한 것으로 주제와 관련된 석·박사 논문, 단행본, 간행물, 국·내외 패션잡지, 인터넷을 이용한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하였다.

II. 미술과 모자이크풍 패턴

1. 모자이크(mosaic)의 개념과 특징

본 연구의 목적인 복식에 나타난 모자이크풍 패턴의 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모자이크에 대한 정의를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자이크(mosaic)는 '여러 가지 빛깔이 나는 나무, 돌, 유리, 조개껍데기 따위의 작은 조각으로 맞추어 도판, 회화 등으로 나타낸 것, 또는 그런 미술 형식³⁾으로 색깔있는 돌, 유리, 조개껍질 등의 작은 조각들을 촘촘히 붙이는 표면장식예술이다. 그 조형적 특징은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가 전체 모자이크 무늬를 이루었을 때 그 장식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⁴⁾고 정의되어 있다. 다시 말해 모자이크의 개념 및 특징은 여러 모양으로 된 유색의 돌이나 유리 등의 조각을 촘촘히 짜맞추어 전체의 모자이크 패턴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모자이크풍 패턴의 특성

원래 모자이크 장식은 건축의 바닥이나 벽화, 또는 천장의 장식을 위한 것으로 사용된 재질은 돌이나 유리, 타일과 같이 건축물에 적합한 것이다. 이러한 모자이크 장식은 점차 미술이나 복식과 같은 건축물 이외의 조형분야로도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

다. 모자이크 장식이 미술이나 복식에 적용될 때에는 건축물과는 달리 사용되는 소재가 고정시키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복식과 건축물은 사용되는 소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에 사용되던 모자이크 장식을 복식에 적용할 경우에는 소재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 경우 복식에서는 복식에 적용가능한 여러 기법을 활용하여 모자이크 장식의 특징을 이미지화한 모자이크풍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식에서의 모자이크풍 패턴은 여러 형태와 색으로 된 조각들을 짜맞추어 만들어진 모자이크와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모티브들이 사용된다. 따라서 모자이크풍 패턴은 건물의 장식을 위해 사용한 모자이크의 특징으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전환시켜 만들어 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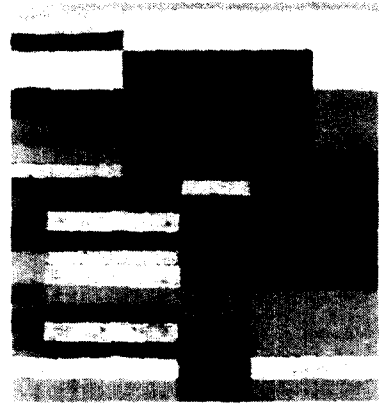
3. 미술작품에 나타난 모자이크풍 패턴

모자이크 장식의 시작은 청동기 시대(BC 14세기)로 보고 있으나, 예술적인 발달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⁵⁾ 모자이크는 처음에는 건축물의 바닥을 장식하기 위해 강이나 바닷가에서 모은 자연스럽고 둥근 형태의 자갈들을 회반죽하여 느슨하고 비정형적 공간을 둔 형태로 배열하다가 점차 그 간격이 촘촘해지면서⁶⁾ 다양하고 정교한 장식용 디테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세 비잔틴 시대는 모자이크가 회화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시기이다.⁷⁾ 중세의 대표적인 모자이크화는 스테인드 글라스이다. 교회와 같은 건축물에 많이 사용된 스테인드 글라스는 화려한 색유리 조각에 의해 면을 분할시킨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실내 장식이 되지만, 장식된 창을 통해 내부로 들어오는 빛과의 관계에서 화려하고 종교적 신비함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그러므로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표현되는 모자이크화는 다양한 조각으로 분할된 면구성과 화려한 색채로 종교적 신비로움으로 공간의 확대감을 주었다.

19세기 후반 쇠라(Georges Seurat, 1859-1891)는 점묘법에 의한 색면 분할로써 모자이크풍의 회화 작

품을 시도하여 작은 조각들의 밀집형태로 하나의 작품을 창조시켰다. 점묘 이외에도 추상적인 구성으로 모자이크풍의 패턴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1>은 20세기 초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6)의 벽화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두 남녀의 얼굴을 전통적인 사실주의로 처리하면서 배경과 의상을 타원, 삼각형, 곡선, 소용돌이 문양과 색채는 서로 짜맞추어져 모자이크와 같은 추상적 패턴으로 표현되었다.⁸⁾ 이러한 패턴은 규칙적·불규칙적인 기하학적 형태의 조각들을 조밀하게 조합하여 추상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게 한다. 여러 조각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큰 패턴을 형성하는 모자이크풍의 작품은 20세기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에 의해 더욱 발전하였다. 그는 작품에서 대상을 해체하고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면을 분할하고 화면을 재구성하여 소재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클레(Paul Klee)는 그의 작품<그림 2>에서 채색된 여러 형태의 사각형 조각들을 치밀하게 배치하여 화면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 디자인에서 여러개의 사각형들은 다양한 크기로 빈틈없이 결합하여 독특한 색채배합을 형성하고 울동감있는 시각적 움직임이 표현되었다. <그림 3>은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4)의 작품으로 1960년 하다사 대학 의학센터의 아서창문을 장식한 스테인드 글라스 연작⁹⁾이다. 이 작품에서 샤갈은 강렬한 색채의 유리로 면을 다양하게 분할하고 종교적 주제를 묘사하여 재구성하므로써 샤갈 특유의 환상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2> Klee, 1930(김영나, 미술사의 이해, Vol. 1, p. 130.)



<그림 3> Chagall, 1960
(김영나, 미술사의 이해, Vol. 3, p.649.)



<그림 1> Klimt, 1905-1908.
(김영나, 서양 현대미술의 기원, p.110.)

III. 복식에 나타난 모자이크풍 패턴

1. 유형분류

1) 소재에 의한 분류

(1) 우븐(woven)

직물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을 교차시켜 제직하는 방법에 따라 조직의 조밀함이나 두께, 부드러움, 투명 또는 불투명, 광택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성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모자이크풍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2) 넌우븐(nonwoven)

가. 부직포

부직포는 전통적인 펠트(felt) 또는 여러 가지의 접착된 직물, 섬유로써 제조 또는 제작되지 않은 직물을 의미한다.¹⁰⁾ 부직포는 20세기 후반 새로운 소재를 중심으로 제작되는 아트 웨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부직포의 표면위에 여러 모양으로 사진이나 그림을 첨가하거나 부직포 자체를 조각으로 만들어 원하는 패턴으로 만들어낸다.

나. 금속

금속(metal)은 쉽게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고 빛의 반사에 의해 금속자체의 특유한 광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재에서 쉽게 얻을수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빛에 대한 반사성과 쉽게 부러지지 않는 점은 금속 자체에 신비스럽고 강인한 이미지를 반영시키고, 이러한 이미지는 환상적이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아트 웨어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 보석류

보석이란 아름답고 귀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속이나 그 밖의 다른 소재의 표면에 여러 가지 보석을 가하여 모자이크풍 패턴을 표현할 수 있다. 보석들은 그 자체로서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른 재질과 함께 사용하여 패턴을 보다 분명하고 화려하게 강조하는데에 사용된다.

라. 가죽 및 모피

가죽(leather)이나 모피(fur)는 그 종류에 따라 그 이미지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복식에는 가죽의 활용 정도가 확대되어 의복 자체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가죽을 조각으로 만들어 모자이크풍 패턴으로 구성하여 장식적 경향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털은 가죽에서 보여주는 거친 이미지와는 다르게 입체적으로 살아있는 털의 부피감을 준다. 복식에서는 입체적인 모피조각들을 직물위에 짜임새있게 붙여 모자이크풍 패턴으로 장식하여 모피가 갖는 자연적이며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표현된다.

마. 플라스틱

플라스틱(plastic)은 열, 압력에 따라 임의의 형태로 성형 가능한 현대에 발명된 합성물질로 20세

기의 대표적인 소재이다. 플라스틱은 조작성이 용이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용이하다.

바. 종이

종이는 식물성 섬유로 되어 있으므로 유연성을 갖는 일면 힘이 좋아 모양이 오래도록 지속되며 흡수, 흡유성을 갖는 동시에 불투명함을 갖고¹¹⁾, 원하는 형태의 작품구성이 가능하며 다른 재료와 함께 사용하면 보다 창조적인 장식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복식에서 모자이크풍 패턴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다.

(3) 편성물(knitting)

편성물(編成物)은 한가닥의 실로 만들어진 루프(loop)의 연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직물로 메리야스, 또는 니트(knit)라 하고 저지(jersey), 망(Net), 레이스(Rachel Lace)의 일부 등이 여기에 속한다.¹²⁾ 니트는 탄성이 직물보다 매우 크고 신축성이 커서 체형에 밀착되며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쉽게 움직이는 성질에 의해 편안하고 구김이 가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레이스나 털실 등은 손뜨개질을 통하여 수공예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모자이크풍 패턴을 표현할 때 섬세하면서도 원하는 구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물구조에 따라 인체의 피부가 노출될 경우 시각적인 흥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노출에 의한 시각 효과를 더하게 된다.

2) 기법에 의한 분류

복식의 표면에 모자이크풍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티브의 조각들을 배치·고정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적용되는 기법은 다음과 같다.

(1) 붙이기

붙이기는 직물이나 가죽, 그 외 소재의 표면에 아교나 풀과 같은 접착제를 이용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¹³⁾ 모자이크 장식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붙이기는 기법이 매우 간단하고 평면적이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점층적으로 크기를 조절하고 반복하여 표현할 수 있다.¹⁴⁾

(2) 프린트

프린트는 직물이나 가죽, 부직포 등의 표면위에 어떤 모양을 눌러서 찍어내는 것,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날염한 직물을 의미한다.¹⁵⁾ 복식에서 모자이크풍 패턴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모티브가 되는 작은 단위 조각들을 직물위의 원하는 위치에 찍어내어 단순한 문양에서 복잡하고 섬세한 문양까지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3) 바느질

가. 자수

자수는 여러 가지 수법(繡法)들을 응용하여 문양 및 색채·질감 등을 표현하고, 입체적인 수무늬(繡紋)의 효과를 특징으로 갖는 기법이다.¹⁶⁾ 자수의 이미지에 중요한 것은 실의 소재이다. 견사나 면사 또는 금속사를 사용하여 표현되는 스티치 라인이나 실에 반사되는 빛의 효과 등을 바탕과 선의 명암 대비로 입체적인 현상을 표현해낸다.

나. 패치워크(Patchwork)

패치워크는 서로 다른 크기의 재질, 또는 다른 색이나 무늬의 조각천 등을 연결하여 하나의 패턴을 구성하는 방법이다.¹⁷⁾

3) 형태에 의한 분류

(1) 정형

정형적인 모자이크풍 패턴은 사각형이나 원 또는 삼각형과 같은 모티브를 일정한 모양으로 잘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규격에 맞게 배치시키므로써 규칙적인 질서와 통일감,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복식에서는 크고 작은 모티브를 규칙적으로 반복시켜 패턴을 정형적으로 묘사된다.

(2) 비정형

비정형적인 모자이크풍 패턴은 모티브의 모양이나 색상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배열하여 불규칙적인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구조는 각 모티브가 모두 서로 유사하지만 똑같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 복식에서는 조각들이 제각각 개성적인 형태로 끼워 맞추어져 시각적으로는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인 형태로

보이지만, 정형적인 형태에서 느낄수 없는 새로운 의의성과 창조성이 표현된다.

2. 모자이크풍 패턴이 묘사된 복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식에서 모자이크풍 패턴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의 종류 및 기법은 다양하다. 이들은 각각, 또는 두 개 이상 서로 혼합 사용되어 미적 효과를 높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는 스웨이드로 만들어진 스커트이다. 정형적인 격자무늬로 면분할된 패턴은 검정과 베이지, 또는 검정과 핑크의 반복된 색배합으로 구성되어 강한 통일감과 울동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 5〉는 파코 라반(Paco Rabanne)의 작품으로 비정형적인 털조각들을 금속 고리로 연결하여 검은색의 바탕 소재는 하나의 경계선을 형성하므로써 강한 색 대비를 이루고 이를 통해 반복된 울동감과 결집된 통일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 6〉은 마리나 스파다포라(Marina Spadafora)의 작품이다. 모델이 입고 있는 가운은 원색적인 원모양의 모티브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빨강, 노랑 등의 연속적인 색면 분할에 의해 경쾌하면서도 역동적인 울동감과 통일감이 표현되었다. 〈그림 7〉은 안나 몰리나리(Anna Molinari)의 작품으로 상의 표면에는 마름모형의 틀 속에 초록, 선홍색, 연보라 등 파스텔톤의 인조 보석류를 촘촘하게 규칙적으로 짜맞추어져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은 실크를 누비고 비닐 코팅 처리를 한 설윤형의 작품이다. 의복의 전면에 구성된 패턴은 빨강, 검정, 노랑, 초록 등으로 반복된 원색 사용과 각 형태의 틀 속에 길상 문양을 표현하여 민속적인 요소와 경쾌하고 강한 울동감 및 통일감이 표현되었다. 〈그림 9〉는 교우치 후지타(Kyouchi Fujita)의 작품이다. 그림에서 스커트는 비정형적인 사각형의 직물 조각들을 패치워크한 것이다. 불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는 각 모티브는 흙, 바다, 나무 등의 자연적인 색상으로 서로 짜임새있게 구성되어 이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은 준코 시마다(Junko Shimada)의 작품이다. 의복의 소재인 가죽 표면에 광택있는 금속성 재료

인 리벳(rivet)을 직선 또는 원형으로 반복적으로 박아넣어 일정한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내므로써 울동감을 주고 있다. 또한 그 패턴은 중세의 스테인드 글라스나 원시풍의 추상적인 문신의 효과를 내어 신비감과 함께 이국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안나 수이(Anna Sui)는 <그림 11>과 같이 두터운 니트 조각을 패치워크한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빨강, 초록, 노랑 등의 선명한 원색의 배합과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의 반복적 패턴에 의해 울동적이며 경쾌한 리듬감이 표현되었다. <그림 12>는 이사벨 마란트(Isabel Marant)의 작품으로 원시풍의 기하학적인 문양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된 스커트는 태양, 그리고 꽃을 형상화한 비사실적인 문양이 오렌지, 초록, 노랑 등의 자연적인 색상으로 프린트되어 그 미적 효과는 자유롭고 이국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반영된 추상적인 특성이 표현되었다. <그림 13>에서와 같이 매튜 윌리엄슨(Matthew Williamson)은 스테인드 글라스 문양을 이용한 드레스와 코트를 선보였다. 왼쪽의 여성이 입고있는 드레스는 장미와 같은 꽃을 형상화한 것이고, 오른쪽의 여성은 식물의 줄기와 다양한 꽃을 형상화한 문양이다. 이들 문양은 초록, 노랑, 핑크, 보라 등 화려한 색감의 형광 플라스틱과 같은 광택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식물을 형상화한 추상적인 패턴을 표현하였는데, 암흑 속에서 무대로 걸어 나오는 모델들에게 형광 조명이 비추졌을 때, 암전 상태에서 쏘아진 형광 조명¹⁸⁾ 아래 드러난 아름다운 드레스는 어둠 속에 움직이는 색면들을 표현하므로써 과거의 모티브에 현대적인 소재를 결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게 한다. <그림 14>는 모리시오 갈란테(Maurizio Galante)의 작품으로 플라스틱 테이프를 일정한 형태로 잘라 의복에 이용한 것이다. 기존의 산업용 폐품인 플라스틱 조각을 의복의 표면에 조밀하게 배치하므로써 새로운 패브릭으로 재창조하였으며, 반복적인 구성에 의해 울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5>에 나타난 작품은 정사각형의 틀 속에 사람의 얼굴을 여러 각도로 프린팅한 인쇄물을 이용하여 조밀하게 이어붙인 것이다. 일정한 규격으로 배열된 직사각형의 모티브는 여러 각도에서 보여지는 인물의 표정과 크기의 변화로 시각적인 울동감과 입체적인

공간감을 주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쓰이는 인쇄물을 복식이라는 새로운 대상에 반영하므로써 소재 활용에 의한 재창조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6>은 아트 패브릭 작가인 캐더린(Katherine Westphal)의 작품이다. 종이 조각에 모네(Claude Monet : 1840-1926)의 자화상이나 꽃을 그린 모네의 그림을 프린트하고 각 모티브로 사용되는 종이조각들을 함께 박아 연결하므로써 종이라는 일상적 재료를 해체하여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의복으로 재창조하였다. <그림 17>은 프랑스 앙드레비(France Andrevie)의 작품으로 그는 유리와 같은 금속 조각을 해체하여 의복이라는 대상의 표면에 재구성하고 반복적으로 촘촘히 이어 붙이므로써 새로운 이미지의 모자이크풍 패턴을 표현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빛의 반사효과로 반짝이는 금속 조각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가능성을 비현실적이고 신비적인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그림 18>은 매튜 윌리엄슨(Matthew Williamson)의 작품으로 드레스의 표면에는 식물을 형상화한 비사실적인 문양을 프린트하고, 보라, 푸른색, 붉은색, 금·은색 등의 반짝이는 플라스틱이나 구슬, 금속사 등으로 붙이거나 자수 장식하므로써 화려하고 환상적인 자연의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IV. 현대복식에 나타난 모자이크풍 패턴의 미적 특성

현대 복식에 나타난 모자이크풍 패턴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울동성

울동성은 일정한 선이나 유사한 색채의 모티브를 반복 배치시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공간적 위치를 바꾸므로써 시각적인 운동감과¹⁹⁾ 통일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 4>에서 모델이 입고있는 스커트는 스웨이드 조각을 연결한 것으로 검정색에 베이지, 또는 핑크로 배합시켜 통일된 울동감을 표현하였다. <그림

5)는 파코라반의 작품으로 검정색의 바탕에 비정형적인 흰색의 털조각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흰색과 검정색에 의한 강한 색배합 효과를 나타내고 이로 인해 통일감과 율동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은 마리나 스파다포라의 작품으로 모델이 입고있는 니트 가운은 흰색으로 짜여진 역동적인 율동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설윤형도 작품 <그림 8>에서 빨강, 노랑, 초록 등 흰색의 삼각형 모티브로 면을 구성하여 역동적인 율동미를 주고 있다. <그림 10>은 준코 시마다의 투피스인데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된 아주 작은 금속 조각을 직선 또는 원의 형태로 반복 배치하여 통일된 리듬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은 안나 수이의 작품으로 빨강, 노랑, 초록과 같은 흰색으로 배합된 니트 상의이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니트 조각으로 된 흰색의 모티브를 반복하여 경쾌한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다. 모리시오 갈란테는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직사각형의 플라스틱 테이프에 프린팅을 하여 무늬를 나타내고, 이것을 조밀하게 배치하여 리듬감과 통일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5>는 정사각형의 모티브속에 여러각도로 프린트된 인물의 표정을 배열하여 시각적인 변화로 율동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매튜 윌리엄슨은 그의 작품<그림 18>에서와 같이 식물을 형상화한 문양을 프린팅하고 그 위에 구슬, 금속사, 플라스틱과 같은 소재를 반복적으로 접착 또는 자수하여 율동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복식에서 모자이크풍 패턴에 의한 율동성은 모티브를 이루는 소재의 형태나 색상의 배치 및 배열방법에 의해 다양한 리듬적 감각을 나타낸다.

2. 이국성

이국성은 종교적으로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사용된 패턴의 색상, 문양, 이미지 등을 도입하여 민속적인 요소로 강하게 반영한 것이다.²⁰⁾

<그림 8>에서와 같이 설윤형은 그의 작품에서 빨강, 노랑, 초록과 같은 흰색을 사용하고, 각 모티브의 틈속에 길상문양을 묘사하여 민속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준코 시마다의 작품인 <그림 10>에

서 작가는 가죽 바탕에 금속성 리벳을 일정한 형태로 반복 배치하여 원시풍의 추상적 문신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사벨 마란트는 <그림 12>에서 태양이나 꽃, 또는 삼각, 사각, 원형으로 된 모티브를 오렌지, 초록, 노랑 등의 토속적인 색상으로 표현하여 추상적이고 원시풍의 이국적인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복식에서 모자이크풍 패턴에 의한 이국성은 자연적인 경향과 민속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서 원색적 또는 토속적인 색상대비와 기하학적 문양 등으로 표현하였다.

3. 추상성

추상성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닌 그 대상의 특징적인 요소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준코 시마다는 그의 작품에서 가죽표면에 금속 리벳을 원형이나 직선으로 박아넣어 원시적인 문신을 형상화한 문양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에서 이사벨 마란트는 태양이나 꽃 등을 양식화하여 추상성을 나타내고 있다. 매튜 윌리엄슨은 <그림 13>에서와 같이 장미꽃이나 식물의 줄기 또는 꽃을 형상화한 문양을 초록, 노랑, 보라 등의 화려한 형광색으로 채색하여 문양의 추상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시 <그림 18>에서도 그는 식물의 꽃잎을 다양한 곡선으로 형상화시키고, 보라, 푸른색, 붉은색, 황금색, 또는 은색의 플라스틱, 구슬, 금속사 등의 반짝이는 소재로 사용하여 비사실적이고 추상화시킨 식물의 문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복식에 있어서 모자이크풍 패턴의 추상성은 형상화시킨 각각의 모티브들을 결합하여 추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4. 신비성

신비성은 인간이 현실에서 억압된 상황이나 제한된 현실 세계에서 정신적으로 벗어나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내면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²¹⁾ <그림10>에서 볼 수 있듯이 준코 시마다는 가죽 표면에 광택나는 금속 리벳을 이용하여 과거에 볼 수 있었던 원시풍의 문신효과를 현대 의복에 적용하여 신비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매튜 윌리엄슨은 그의 작품<그림 13>과 <그림 18>에서 형광 플라스틱과 구슬, 금속사와 같은 광택있는 소재를 사용하므로써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광택과 빛의 반사로부터 과거의 모티브에 현대의 과학적인 소재를 결합시킨 미래의 복합적인 이미지를 반영하므로써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앙드레비는 그의 작품<그림 17>에서 금속 조각으로 된 의복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반사효과를 이용하여 비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신비로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모자이크풍 패턴에서 나타나는 신비성은 광택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빛에 의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5. 해체에 의한 재창조성

해체에 의한 재창조성은 기존의 대상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쓰이던 것이 낱날로 갈리어 흩어지거나 뜯어 해친 것을 다양한 형식을 이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으로 작가의 감정이나 의도에 따라 대상이 변형되거나 왜곡되어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새로운 조형적 시도를 통한 재창조성으로의 기대치를 높여준다.²²⁾

모리시오 갈란테는 그의 작품<그림 14>에서 산업 폐기물인 테이프를 의복에 사용한 것으로, 이것은 의복의 소재활용 측면에서 기존 관념을 해체시켜 의복에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15>는 일상에서 쓰이는 인쇄물을 프린팅하여 의복에 재구성한 것으로 이것 역시 기존에 의복의 소재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의복에 새롭게 재구성하므로써 해체에 의한 재창조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캐더린은 의복의 소재를 직물이 아닌 종이를 사용하여 그 위에 그림을 프린트하여 조각으로 엮어 재구성한 것이다. 프랑스 앙드레비는 그의 작품<그림 17>에서 유리같이 반짝이는 금속 조각을 촘촘히 이어붙여 의복에 있어서 소재의 무한한 활

용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복식에 있어서 해체에 의한 재창조성은 기존에 의복의 소재였던 직물대신에 테이프나 종이, 금속과 같은 이질적인 소재를 해체·변형하여 의복이라는 대상에 새롭게 적용시켜 재구성하므로써 재창조적인 이미지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복식에 나타난 모자이크풍 패턴은 회화의 한 양식인 모자이크를 이미지화한 것으로, 각종 소재나 일정한 형태의 모티브를 반복, 배치하여 전체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의해 그 장식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모자이크풍 패턴은 그것이 갖고 있는 화려한 장식성으로 인해 현대 복식에서 중요한 표현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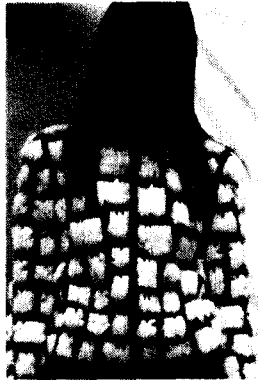
현대 복식에서 모자이크풍 패턴에 의해 표현되는 미적 특성은 울동성, 이국성, 추상성, 신비성, 해체에 의한 재창조성으로 나타난다. 울동성은 모티브를 이루는 소재의 형태나 색상의 배치 및 배열방법에 의해 다양한 리듬적 감각을 나타낸다. 이국성은 자연적인 경향과 민속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서 원색적 또는 토속적인 색채대비와 기하학적 문양 등으로 표현하였다. 추상성은 형상화시킨 각각의 모티브들을 결합하여 추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신비성은 광택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빛에 의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해체에 의한 재창조성은 기존에 의복의 소재였던 직물대신에 테이프나 종이, 금속과 같은 이질적인 소재를 해체·변형하여 의복이라는 대상에 새롭게 적용시켜 재구성하므로써 재창조적인 이미지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복식'이라는 매체를 통한 모자이크풍 패턴의 미적 특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현대의 다양한 요소 즉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 자연과 과학 등의 문화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그림 4> (so-en, 2000, 11, p.60.)



<그림 5>

<그림 5> Paco Rabanne(High Fashion, No. 273, 2000, p.127.)



<그림 6>

<그림 6> Marina Spadafora(Fashion Show, 1997, p.287.)



<그림 7>

<그림 7> Anna Molinari(Marie Claire, No. 10, 2000, p.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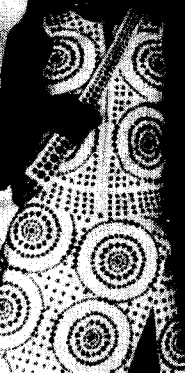


<그림 8>

<그림 8> 설윤형(Fashion Today, No. 81, 1997, p.43.)



<그림 9>



<그림 10>

<그림 10> Junko Shimada(Fashion News, Vol. 58, 2000 S/S)



<그림 11>

<그림 9> Kyouichi Fujita(Fashion News, Vol. 48, 1998. p.92)

<그림 11> Anna Sui(Vogue Korea, 1999 F/W.)



<그림 12>

<그림 12> Isabel Marant(Elle, 2000 S/S.)



<그림 13>

<그림 13> Matthew Williamson(High Fashion, No. 273, 2000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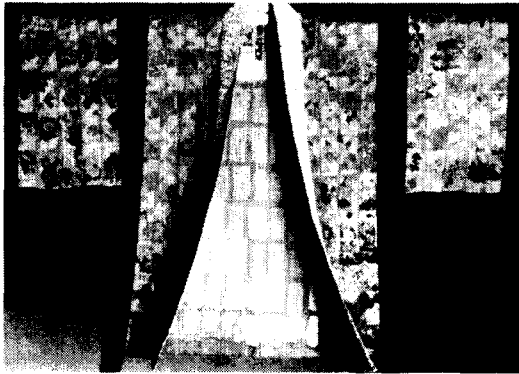
<그림 14>

<그림 14> Maurizio Galante(Flash, 제54호, 2000, p.52.)



<그림 15>

<그림 15> (Marie Claire, No. 10, 2000, p.316.)



<그림 16>

<그림 16> Katherine Westphal(Flash, 제59호, 2000, p.40.)



<그림 17>

<그림 17> France Andrevie(TIN뉴스, 제105호, 2000, 1, 5)



<그림 18>

<그림 18> Matthew Williamson(High Fashion, 2000 F/W, No. 273, 문화출판사, 2000, 6.)

참고문헌

- 1) 차하순, 「서양사총론」, 탐구당, 1989, p. 144.
- 2) 오희선, 「텍스타일 디자인론」, 교학연구사, 1996, p. 172.
- 3) 김종진, 「현대국어사전」, 은광사, 1995, p. 185.
- 4) Britannica World Encyclopaedia, Vol. 7, Britannica · Dong-A, 1993, p. 598.
- 5) Jane Turner, Dictionary of Art, Vol. 13, Grove, 1996, p. 560.
- 6) Jane Turner, 상계서, p. 556.
- 7) <http://www.artworld.co.kr/art>
- 8) 김영나, 「서양 현대미술의 기원」, 시공사, 1996, p. 110.
- 9) 데이비드 파이퍼 / 손효주 · 유시주 · 양건열 역, 「미술사의 이해」, Vol. 3, 시공사, 1995, p. 649.
- 10) 장지혜 · 권영아, 「직물학」, 신광출판사, 1996, p. 156.
- 11) 김정신, 「현대 패션에 나타난 종이 작업의 조형효과 연구」, 대한가정 학회지, Vol. 35, No. 1, 1997, 2, p. 3.
(재인용) Jules Heller, Paper making, N. Y.Guptil Publication, 1978, p. 23.
- 12) 장지혜 · 권영아, 전계서, pp. 142-148.
- 13) 김종진, 전계서, p. 251.
- 14)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7, p. 154.
- 15) 정영삼, Si-sa Elite English-Korean Dictionary, Si-sa, 1999, p. 1719.
- 16)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25), 「자수장(刺繡匠)」,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p. 7.
- 17) 石山彰, 「服飾辭典」, 다투이트社, 1972, p. 539.
- 18) Vogue Korea, 2000 F/W.
- 19) 김종진, 상계서, p. 369.
- 20) 이춘희, 「현대 복식에 반영된 동양적 이미지의 기호학적 분석」, 중앙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 7.
- 21) Britannica World Encyclopaedia, Vol. 19, 전계서, p. 594.
- 22) 이효진, 「세기말 서양 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에 관한 연구」, 한국 복식학회지, Vol. 50, No. 3, 2000, 5, p. 15.